

2018년 9월 30일 “복음의 여정(2) 십자가 죽음 아래”(갈 6:14; 고후 6:4-7)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를 기초로 복음적 삶을 열어가게 됩니다.

[1] 기독교의 기초 - 십자가

신앙생활에 관하여 '어떻게 무엇을'의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기독교의 시작이며, 원리와 방식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을 상기시키는 상징입니다. 신약 저자들은 십자가에서 예수의 죽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임을 주장했고 이것이 모든 초대 교회를 일어나게 했습니다. 신약의 중점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마 16:16**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말 후에 주님은 죽으실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 (2) **막 10:45**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 (3) **눅 9:31** 변화산 -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고 말합니다.
→ 십자가 사건은 네 복음서에서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증거합니다.
- (4) **사도 행전**의 모든 메시지에 죽음과 부활이 강조됩니다.
- (5) **서신서**에서 십자가의 피로 인한 복음에 기초하여 각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가르칩니다.
- (6) **요한 계시록** 예수그리스도의 죽음을 찬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1:5)

[2] 십자가에서 죽음은 생명으로 향하는 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원리/방법입니다. 어떻게 구원 받는가?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세상이 추구하게 하는 세속적 방식과 목표 따위가 내게 힘을 쓰지 못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또 세상 방식과 목표를 쫓고 추구하던 **옛 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롬 6:3-4) 세상은 나에 대해 무력하다는 말입니다.

옛 사람의 죽음이 필요한 이유는 그가 절대적 가치를 두고 재물, 외모, 출세, 화려함, 편리함과 같은 일시적인 것만 쫓는 것이 허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원한 가치를 입게 하기 위해 십자가는 옛 삶을 어떻게 처리하고 주님과 연결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길은 자아(에고)의 무력함, 즉 죽음과도 같은 길을 선택하고 통과할 때 약속된 새 삶을 받는다는 원리 위에 나아갑니다. 직장, 학업에 관련된 기능에 있어 일부러 무능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아의 죽음과 기능의 무능함은 다른 주제입니다.

자아의 죽음이란 자신의 계획과 의로움과 방식을 내가 맺은 관계 속에서(공동체 - 가정, 교회 등) 주장하고 관철하려는 의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 더 보면,

갈 5:24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 살과 뼈의 육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속적 방식과 가치관을 쫓는 인간의 죄성(sinful nature)을 뜻합니다. 이 죄성과 함께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박았다는 것입니다. ‘정욕’(passions)은 세속적 가치관이 높여주는 것들에 대한 열정을 말하고 탐욕은 그것들로 나의 이기를 채우는 것을 뜻합니다.

예: 세상 가치관 - ‘능력이 많으면 우월하고 축복이다’. 능력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많으면 더 잘났다고 믿게 하는 가치관이 잘못입니다. 세상은 이런 가치관을 신봉합니다. 그것을 신봉하는 이유?

무한 경쟁에서 능력이 높지 않으면 실패이고 잘못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소중한 관계의 가치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능력 추구에 매진합니다. 이것에 대해 5:24 을 비춘다면, 능력을 길러야 존재가 우월해진다는 세속 가치관을 쫓는 열정을 못박았다는 뜻입니다(바울의 유대교 시절을 참조).

[3] 십자가를 사랑하는 이유

고후 12:9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리고 덧붙인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십자가가 기초가 된 삶.

고후 6:4 이하 자신이 겪은 환란을 언급합니다. 약한 것은, 환란, 궁핍, 고난, 매맞음, 간힘 등... 그러나 이 속에서 깨끗함, 지식, 인내, 자비, 성령의 감화, 거짓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기를 좌우에 가졌다고 합니다. 고난이 닥치면 고달픔, 부정, 분노, 불평, 복수심... 이런 것들이 치고 들어왔을 지 모르지만 이것이 지나갔고, 이내 자기 안에서 솟아나는 참 생명의 싹들이 피워 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자랑이었습니다.

복음의 여정을 걷는 신앙생활에서 자랑은 죽음을 통해 새차원의 삶(생명)이 내 안에서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생명을 힘있게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빌 1:6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딤후 1:12 참조)

<맺음>

복음의 삶은 십자가의 죽음을 거쳐 새롭게 됩니다. 세상이 자신에 대해 무력하다는 사실을 바울이 확신했을 때, 어떤 고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고난속에서 참 생명의 싹들이 피어남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기독교의 기초이면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사도들도 처음에 그랬음). 그러나 영원히 가리워진 진리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셨어야 했습니까? 내게 그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2. 나의 복음의 여정에서 장애물이 되는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나의 방식, 습관, 성품 등의 영역에서 세상을 쫓도록 형성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3. 옛 모습이 처리되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싹이 나고 있다면 말씀을 나누어 보세요. (고후 6:4 이하를 읽어보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